

취업  
50%  
안  
돼

얼기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낮은 편이며, 취업을 했다고 인정을 큰조건의 많지 않아 증소에서 일자리를 얻는데 그쳤다. 그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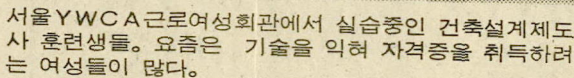
명에 불과했고 작년 12월 개관한 麻浦부녀복지관도 1기 기술교육 수료생 4백82명중 33.6%만이

건축설계제도 증을 취득하려

후련 피부미용 △중안부인회 〓홀  
패션양재 동양자수 기계자수한  
복등이다.

이런 기관들은 월수강료가  
반비정도이며, 서울 WCA도 매  
월의 정액 4,000원을 받아 수  
강생들에게 월 4만 5천원의 교  
료까지 지급하는데 수강료가 싸  
고 취업연계도 해주기 때문에 수  
강생들의 3 대 1 이상의 높은  
수령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주부들의 이같은 취업



여성단체등 10여곳서 실비로 지도  
인기없는 직종 자격증도 없어 외면

해韓南大 林善植교수(사학보사관)는 '현재 기술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시대와 무관한 새로운 기술종목을 열애할 것이 옳고 이 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후의 교육구배의 면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라고 지적했다. 미영 한류 동양자수 표구 미선문관들의 작품은 길수록 수고가 높고 한계의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영근 어원교 김현교가 대표적이다.

이같이 사적인 지칭은 만민조인을 비파해보면 쉽게 드러난다. 미영 한류는 월5만~8만원, 동양자수 기계자수들은 월10만원안팎인데, 이에 비해 오성에게 새로 만수정원 노백관 하루 1만~2만수정원, 호델미화부는 월20만원, 기계제도는 16만수정원~18만원 정도만 되는 것이다.

서울시麻浦구노복지관의 安熙조판장이 기술교육생 대상자를 조사 결과 87%가 자조능 원능에 원하고므로 새로운 진흥개발을 할 계획이다. 3~4개월간의 교육이므로 조부적인 기술적인 것치고 있거나 조부적인을 원도 전무하여 자조능 원능 원능과 밀접연관을 맺어달라는 점까지 느끼고 있다. 그 결과이다.

△金世媛기자△

## ◎ 취업훈련생 모집

남부종합사회복지관(803-3526)은 18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실을 열고 21일까지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과목은 머리미용, 피부미용, 양재, 손뜨개, 지점토이고 모집인원은 각 25명이다.

非進學者대상 91년까지 8萬명으로

을 통해 진열공간이 넓어졌다. 현재 5만 5천 65명이 넘는 8만여명

으로 확대한다는것.

정부는 또 이들이 직업을

력을 받고 있는 동안에 질병

검사와 이종원(李宗元)의 아들인

연가하거니와 연가일을 조정  
해주고, 연가일을 조정

하루  
3년과  
이수한

三ノノ

造花기능사보 시험 공정성 싸고 논란

여성 특히 주부들이 부업으로 많아  
는 조화만들기의 기능검정시험의 공정

을 돌려싸고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5, 16일에 실시된 조화기능사보시

조호전문가 이니 플린우드인

전통가게 중심의  
60%가 활약

데 비해서 다른 지역의 할적률은 20%가

채안돼 겁정의 공평성이 깨어졌다고 전

국에서 1백70여명의 응시자들이 노동

부에 진정을 하고 나셨다。

지난 6월 15, 16일 실시된 조화기능

사보시협을 보고난 유세자씨(서울冠岳

구奉天동 1644의 26등 1백 70여명의

2월 2일 △조호준 장군 환영회

무료직업훈련생 모집

서울시는 14~50세의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제2기 무료직업  
훈련생 9백35명을 모집한다. 9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서울종합직  
업훈련원에서 자동차정비 양복  
읍셋 인쇄 봉재 전기용접 등 9  
개 직종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무료훈련의 응시원서 접수는 오  
는 18일부터 시작된다.

(문의:서울종합직업훈련원. 전화 477-3530)

지난달 24일△조화검정시험에서이시

이다.